

사라진 시간 Missing Time

글: 이에신
번역: 정지훈

- a. 1950년 5월, 라이프지는 폴과 에블린 트렌트 부부가 오레건주 맥민빌로부터 11마일 떨어진 곳에서 목격한 ‘신원 미상의 비행체’ 사진을 게재했다. 부부 소유의 농막 뒷마당에서 촬영된 이 사진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후 수십 년에 걸쳐 UFO에 관한 목격담은 점차 외계 존재에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으로 대체되었다. 그들이 제시한 다양한 목격담과 사진들, 그리고 과학수사적 증거는 낫설고 기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보이는 지능을 갖춘 외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 했다.
- b. 외계 존재에게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 중 대다수는 소위 “사라진 시간(Missing Time)”이라 그들이 부르는 초기 기억상실 증상을 호소했으며, 그 기억들을 되찾고자 최면 치료를 받기도 했다.¹ 예술가이자 UFO 연구자인 버드 홉킨스는 이런 현상과 연구 결과들을 참조해 몇 권의 책들을 출판했는데, 거기에서 그는 “누구나 어떤 기억도 없이 납치되었을 수”도 있으며, 최면 치료가 “그런 사라진 기억을 풀어내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²
- c. 『보이지 않는 모습(Sight Unseen)』에서 홉킨스는 자신들 역시 외계 존재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워시번 가족을 만나기 위해 브리즈번을 방문했던 일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언뜻 보기에는 그저 텅 빈 놀이터를 찍은 풍경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네 장의 사진을 홉킨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제니 워시번에 따르면 이 사진들에는 “분명 우리 가족을 찍었던 사진인데, 사진에 우리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³ 그러니까 그녀가 외계 영향의 증거로 제시했던 것은, 말하자면 공백의 이미지, 즉 피사체의 불가사의한 실종 현상에 관한 이미지였다.
- d. 나사 제트추진연구소가 1976년 공개한 화성 궤도 탐사 연구선 바이킹의 사이도니아 지역 촬영 사진에는 기묘한 얼굴의 형상이 포착되어 있다. 화성 지표면에서 튀어나와 있는 그 얼굴에는 스펅크스적인 침잠이 감돌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것이 플로클레이토스의 조각상이라고 하더라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이다. 이게 화성의 흙먼지 속에 파묻힌 납치 희생자의 얼굴일까? 아니면 외계 존재의 흔적인 걸까? 아쉽게도, 그건 그냥 집단적인 망상이 빚어낸 신기루였을 뿐이다.

¹ Bader, Chris D. “The UFO Contact Movement from the 1950s to the Present.” *Studies in Popular Culture* 17, no. 2 (1995): 73-90.

² Hopkins, Budd. 1981. *Missing Time: A Documented Study of UFO Abductions*. New York: Richard Marek Publishers.

³ Hopkins, Budd; Rainy, Carol. 2003. *Sight Unseen: Science, UFO Invisibility, and Transgenic Beings*. New York: Atria Books.

- e. 과학자 칼 세이건은 이를 두고 황색언론의 저열한 상술에 지나지 않으며, 그저 “빛과 그림자의 속임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숙연한 얼굴은 여전히 비어있는 시선으로 우리를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다. 그 사진 속에 있는 것은 멀고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현실을 배반하고 있는 낯선 비존재의 얼굴이다.
- f. 빅토리아 시대의 심령사진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떠다니는 과거라는 이미지를 마련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외계의 사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존재한다. 만약 심령사진의 영혼들이 현재 안에 살아가는 과거의 존재를 증명한다면, 외계의 사진은 어렵풋하게 내다보이는 미래의 ‘우리가 아닌 인간’을 암시할 것이다. 상실과 비가시성, 부재라는 테마의 연달은 반복은 모두가 불가해한 공허와 주문呪文들을 겨냥한다. 아울러, 외계의 이미지에 관한 물음들은 사라져가는 피사체의 징후를 나타내며, 그 자신 죽음의 무게 또한 품어낸다.
- g. 외계에 대한 열정 이외에도 홉킨스는 1950년대의 추상표현주의 운동에 속해있기도 했다. 그러나 후기 이후 그의 작업은 머더웰의 조야한 획 구성과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적 기하학을 결합한 듯한 디자인의 영향을 보여준다. 1975년, 로버타 스미스는 이를 두고 “역설이라기보다 혼성적인 짜깁기(pastiche)에 가까우며, 요소들이 완결된 전체로 통합되지 않고 단지 뭉쳐있을 뿐이라 쉽게 분리된다”라고 평가했다.⁵ 이렇듯 추상표현주의에서 벗어난 홉킨스가 회화와 UFO 연구에서 더욱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모두 간극, 즉 서로 상충하는 요소들이 만들어 낸 단층적인 공간이었다.
- h. 회화가 더는 사생寫生이 아니라 이미지를 참조하는 일은 이제 매우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물론 인상파 시절부터 암묵적으로 행해졌던 속임수인 몰래 사진을 엿보는 것 뿐만 아니라, 기계적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⁶ 그런 작품들이 바로 ‘파스티슈’다. 언제나, 그리고 의도적으로 짜기워진 그들 작품에는 실재하지 않는 대상을 모사하느라 추상성과 구상성이 번갈아가며 나타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불가피한 것은, 추상이 이미지의 외계에서 파생되어 얻어진다는 것이다.
- i. 이미지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이미지 바깥의 외계, 즉 피사체 대신에 외계의 존재에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피사체가 사라진 자리에 외계 존재가 겨우 발붙이고 있는 동안, 그림은 그 사라짐의 주변부에 새겨진 음성陰性적 각인을 따라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피사체의 부재가 없다면, 이미지 안의 공백에서 비롯된 외계 존재와 그림의 존속도 있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림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의 외계이지만, 보지 않는 것은 거기에 드리운 망자의 그늘인 셈이다. 이미지를 그린다는 것은 이렇듯, 그것의 빈자리를 그린다는 것이다.

⁴ Wikipedia contributors, "Cydonia (Mars),"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Cydonia_\(Mars\)&oldid=1161873954](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Cydonia_(Mars)&oldid=1161873954) (accessed October 16, 2023)

⁵ Smith, Roberta. "Bud Hopkins." *Art Forum (1950-)* 14 no. 1 (1975)

⁶ Crimp, Douglas. "Positive/Negative: A Note on Degas's Photographs." *October* 5 (1978): 89-100.